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2	3	4	5	6	7
						Food Fair
8	9	10	11	12	13	14
				Bethany home last day	Volunteers dinner	
15	16	17	18	19	20	21
Go back to KL	← Singapore →					
22	23	24	25	26	27	28
				Mid term		←
29	30	31				
Bethany Camp	→					

푸

드

페

어

베다니홈에는 항상 특별한 행사들로 가득하다. 우리들은 운 좋게도 지난달에는 페락스페셜올림픽을, 이번달에는 베다니홈 푸드페어를 함께 참여할 수 있었다. 푸드페어는 도네이션의 일종으로, 음식을 팔아 번 수익금을 모으는 행사이다. 베다니홈에서는 우리에게 상점의 한 켠을 부탁하였고 우리는 흔쾌히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우린 베다니홈에서의 활동이 마지막에 다다른 만큼 더욱 더 잘하고 싶었고 열심히 하고싶었다. 우선 음식을 정하기로 논의하였고 결과 우리는 해물파전과 계란말이밥, 그리고 수박화채를 만들기로 하였다. 이전부터 친구들을 초대하여 선보였던 음식들이었기 때문에 더 자신이 있었다. 또한 음식을 만들뿐아니라 우리모두 한복을 입고, 부스를 한국에 대한 소개들로 이쁘게 꾸미고 틈틈히 아이들에게 풍선아트를 해줄 계획도 야심 차게 세웠다.

푸드페어 당일, 아침 일찍부터 베다니홈은 활기가 넘쳤다. 베다니홈 전반부 모두가 천막으로 상가를 이루었고 봉사자들과 선생님들 모두 분주하게 움직였다. 우리도 또한 전날부터 다듬어 놓은 음식재료들과 준비물들로 축제를 준비했다 우리 여자단원들의 개막식보조로 푸드페어는 성대하게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복세통을 이루었다. 물론 그중 으뜸은 우리 한국상점이 아니었나 싶다. 시작도 하기 전부터 사람들은 처음보는 한복에 호기심을 가지며 몰려들었고 우리의 음식에 또한번 호기심을 가지며 음식을 구매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정말 말레이시아에서 상점을 하나 차려야하나 싶을 정도로 많은 주문이 밀려들었고 많은 주문 때문에 30분씩 밀리기도 했었다. 메인 음식인 해물파전과 계란말이밥은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라 정말 실땀 없이 바빴고 때문에 준비했었던 풍선아트와 방명록 만들기는 시도도 할 수 없었다.

쪽 순탄치 만은 않았던 것이 우리는 이전에 푸드페어에 대한 정보가 없었으니 주방 도구의 준비가 미흡할 수 밖에 없었다. 가스버너가 고장나고 후라이팬이 부러지는 등 주변 소품으로 인한 위기가 있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때마다 우리 그룹홈 친구인 말콤이 우리는 도와주기도하였고, 베다니 식구들이 도와주는 등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고, 때문에 푸드페어를 무사히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비록 몸이 힘들기는 했지만 아쉬움이 없는 즐거운 축제였다!



Bethany Home last day

우리는 베다니 홈을 떠나기 전에 그동안 함께 활동했던 각 나라의 봉사자 친구들과 physio에서 활동하는 kiran, 체육선생님 azmi를 초대하여 저녁식사를 대접했다.

메뉴는 비빔밥, 닭볶음탕, 파전 그리고 계란말이 밥이었다. 특히 파전과 계란말이밥은 5월에 있었던 베다니홈 푸드 페어에서 선보였던 음식인데, 이 음식에 대해 굉장히 호평을 받았기에 봉사자들을 위해 다시한번 준비했다.



한국음식하면 매운맛이 아닐까? 우리는 이날을 위해 한달전부터 KL에 사는 말레이시아 봉사자를 통해 고추장을 공수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비록 좁은 거실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먹여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유쾌한 저녁식사가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 우리는 음식준비에만 몰두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시간은 생각치 못했다. 식사이후 급격히 서먹해진 분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급히 맥주를 준비했다.

물론, 베다니홈 내에서는 금주가 원칙이다. 하지만 이런 일에 있어서는 친목도모를 위해 적당히 음주가무를 즐길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놓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지루한 코리안이 되기 싫다면...

마지막으로 음식하느라 수고한 여자단원 동생들에게 고맙다.



Raonatti 5, 베다니홈 활동 총 정리



클레이아트



키친 헬퍼



그룹홈-gathering



푸드페어



라이트하우스-책갈피만들기



그룹홈-낚시



1 by 1



체육활동



그룹홈-도네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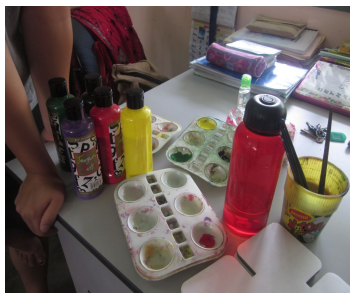
모자이크



풍선아트



가드너



핸드프린팅



스페셜올림픽



폼클레이



야외활동 보조



카페



수영활동 보조



클럽활동



베다니캠프

RUMAH BETHANY

special아동들과 함께한 베다니활동은 내게 역시 special로 오랫동안 기대될 것이다. 우리 라온아피 활동 대부분이 Y와 이루어지는데 베다니홈은 말레이시아 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고 감사한 경험들을 할 수 있었다고 믿는다. 한국에서부터 장애아동에 대한 낯설음은 없었지만 베다니홈에 오고 나서 더 그 아동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 활동이 끝난 지금 오히려 보통 아동들과 다름을 느끼지 못하겠다. 사실 아직도 한명 한명 이름은 다 기억하지 못한다. 유독 눈에 밟혔던 아이가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베다니홈아이들이란 이름으로 모두가 그림다. 베다니홈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적으로나 팀적으로나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된다. 이곳은 내게 말레이시아의 꽃과 같은 활동이다! - 해애연(Alice)

베다니홈은 그냥 사랑할 수 밖에 없는 곳이다. 흔히 바보라고 부리는 아이들이지만,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누구보다도 귀엽고 사랑스럽다. 그 눈에 밟히는 아이들이 여전히 그리움 것이다. 아이들의 이유없는 사랑에 감사함은 느낀다. 생활을 부분에서는 우리 다섯명이 나선 말레이시아 시골에서의 생활을 무사히 잘 마친 것 같아 뿌듯하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끼리도 큰 아쉬움 없이 여러 에피소드를 만들며 잘 지냈듯하고 주변 그룹홈이나 마을 이웃들과도 잘 어울려 생활했던 것이 뿌듯하다. 아쉬움이 남는 것은 마을 아이가 내 돈을 훔쳐갔을 때, 내가 내 물건을 더 잘챙기지 못해서 불미스런 일이 생긴 것 같아 모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앞으로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고 조심하겠다. -윤무중(Louis)

내 인생에서 이렇게 아쉬웠던 적이 있을까? 베다니홈 학생들, 봉사자, staff 모두가 그림다. 약 6주간의 활동에서 처음 2주 동안 우왕좌왕했던 것 같다. 항상 주어진 일을 하다보니 직접 일을 찾아 스스로 한다는 것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이다. Irene과 이전기수들에게서 이 점들에게 대해 이야기를 들었지만 막상 실천하기가 어려웠다. 일을 찾아서 하는 의식이 훈련되어 있었다면 약 2주간의 시간을 더 의미있게 보낼 수 있었을 것이다. -문기(Ki)

베다니홈은 처음으로 나에게 장애아동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느끼게 해준 곳이다. 베다니홈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마도 장애아동들을 편견으로만 바라봤을 것이다. 베다니 아이들은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가르쳐주었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항상 즐겁고 좋은 기억 밖에 없다. 그래서 너무도 그리운 곳이다. 그리고 진정한 자원봉사의 의미를 가르쳐 준 곳일까? 항상 시키는 일만 해왔던 나에게 아무일도 시키지 않는 베다니홈은 내일은 내가 찾아서 해야된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해주었다. 지난 6주간 나는 베다니홈의 일부분이었으며, 그 누구보다 행복했던 순간이었다. - 김진아 (Jina)

누가 내게 베다니홈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이들이 있는 살고있는 곳이라 말하고 싶다. 처음 베다니홈에 갔을 때는 오직 아동의 진단명에 관심이 있었다. 그렇지만 아동의 진단명이 아닌 행동을 읽고 마음을 읽으며 다가갔을 때 진짜 친구가 될수 있었다. 매일 아침 양손을 흔들며 반겨주는 모습, 활동이 끝나고 캠프를 위해 다시 돌아간 그곳에서 나를 보자마자 꼭안아주던 모습, 헤어지는게 슬퍼 우는 내게 사랑한다고 말해주던 모습, 베다니홈은 내게 잊을 수 없는 사랑스러운 이들이 머무는 꿈같이 아름다운 곳이다. 깨고 싶지 않은 꿈, 기회가 된다면 또 다시 그 꿈을 꾸고싶다. -김지은(Julie)

Mid term

5./24- 5/26 말레이시아 팀의 중간평가가 있습니다. 이번 중간평가 일정은 저희가 5/28-5/30일에 있을 베다니홈 캠프에 참여하기 위해 사전에 연맹과 연락을 취해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24일 KLIA공항에서 이영림간사님, 김도환팀장님, 구미YMCA이동식 사무총장님과 라온아피5기가 반갑은 재회를 했습니다. 근처 한인타운으로 자리를 옮겨 말레이시아에 온 이후 처음으로 맛있는 삼겹살을 먹으며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숙소에서 영림간사님과 라온아피5기는 새벽 늦게까지 저녁먹으며 못다피운 이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이날 이야기에서 말레이시아의 생활 중간에 서있는 시점에서 지난 2개월을 되돌아보며 그동안 서로에게 미처 못했던 이야기도 나누고, 남은 2개월을 더 파이팅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중간평가는 처음으로 KL에서 진행되어서 KL, Penang외에 라온아피의 주활동지인 Bethany Home도 함께 방문할 수 있습니다.

VISA TRIP



2011/05/16 07:16



2011/05/17 03:23



2011/05/17 08:45



2011/05/17 08:29



2011/05/17 10:55



2011/05/16 23:02

우리가 처음 말레이시아에 왔을 때 90일 여행자 비자를 받았다. 90일이 지나면 말레이시아에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까운 싱가포르로 Visa Trip을 떠났다. 처음에 우리는 태국 치앙마이를 가기로 계획 되어 있었다. 우리는 행여나 라온아띠 태국팀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쁨에 설렘어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는 싱가포르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모두들 망연자실 했으나 싱가포르로 떠나는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았다. 싱가포르는 Fine city로 유명하다. Fine city에는 두가지 의미가 있다. 깨끗하고 살기 좋아 Fine, 그리고 뭐만하면 벌금을 내서 Fine.. Irene은 우리에게 신신당부했다.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같지 않아 무단횡단도 하면 안되고 침도배어서는 안되고 껌도 배어서는 안된다며.. 사실 약간 긴장했다. 정말 자칫 잘못 걸려서 벌금을 물수도 있다는 생각에 ... 긴장한 탓일까 입국 관리소에서 문기 단원과 해어 단원은 조사를 받아야 했고 우리 때문에 20분정도 delay가 됐다. 산뜻한 출발과 함께 첫날밤에는 동물들과 함께하러 세계 최초의 나이트 사파리를 경험하러 고고! 김진아 단원은 예전에 싱가포르에왔을때 나이트사파리만 못해봤다며 꼭 해보아야한다며 엄청 기대를 했지만 보고 난뒤에는 약간 싱거워했다는 소문이 있다. 그러나 재밌는 수달도 보고 밤중에 동물원을 걷고 울타리도 없나스을 걷는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게 분명하다. 그거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했다. 그날은 푹~쉬고 다음날은 싱가포르 YMCA의 푸짐한 아침뷔페를 먹으며 일정짜기! 그러나 일정짜는데 엄청 애를 먹었다. 5명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기가 쉽지가 않았다. 다들 가고싶은곳이 있는데 행여나 싱가포르에서 떨어져 다니면 잃어버릴까 걱정이되어 5명에서 꼭 붙어다니자고 했는데 그래서 아침부터 약간 우리는 삐걱했다. 그치만 다들 으샤으샤 해서 세트사 섬으로 가기로 결정! 여기서 우리는 깨달았다. 단체활동을 하면 자기가 포기해야 하는 부분도 있게 된다는 것을.. 세트사섬은 너무 예뻐다. LUGG라는 재미있는 레이싱카도 타고 4D영화도 보고 어린이아이드처럼 신나게 놀았다. 밤에는 클럽에서 칵테일을 먹었다. 입에서 살살 녹았다! 마리나샌즈베이도 구경하고 하루종일 우리는 너무 알차게 보냈다!야호!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싱가포르는 서울만한 크기에 서울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물론 흥미로웠지만 너무 도시의 느낌이라까..싱가포르만의 특유의 분위기도 없고 비싸고 깨끗한 쿠알라룸푸르 랐까..? 다음에 6기가 오게된다면 비자트립은 태국으로~!! 험씬 물가도 싸고 볼것도 많고! 아! 싱가포르 1달러는 말레이시아 3링깃과 똑같다. 거의 3배..오아 말레이시아인이 되어 살다가 싱가포르가니 너무 비싸게 느껴졌던 거 같다. 쇼핑물이 너무너무 많았지만 말레이시아가 더 싸기에 쇼핑은 하지도못하고 쇼핑물만 구경하다 왔다. 약간의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5명에서 함께하는 세번째 여행이기에 또 하나의 추억으로 남길수 있게 되었다.

Bethany Camp

우리 라온아띠5기 6주활동의 종지부를 찍는 캠프인만큼 남다르게 다가왔던 캠프였다. 한국에서 장애아동캠프를 경험해 본 단원들은 말레이시아와 한국의 장애캠프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함으로, 장애아동캠프를 접해본 적이 없는 단원들은 처음의 호기심으로 캠프를 기다렸다.

캠프는 봉사자 1명, 아동명 1:1 매칭으로 진행되었다. 베다니홈에서 출발하여 카메룬에서 캠프가 끝나는 순간까지 맺어진 짝꿍과 함께한다. 취침, 목욕, 식사 모든걸 함께하며 도와야하는 만큼 사실 몸은 힘들다. 아동의 상태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정도가 다른데, 도움이 많이 필요한 아동은 그 아동대로, 혼자서 스스로 하는 아동은 그 아동대로 봉사자들은 활동을 통해 다양한 감정들을 느낄 수 있다.

무엇보다 베다니홈의 원래 아동말고도 캠프를 위해 각지에서 special아동과 그 가족, 봉사자들이 모였다. 처음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색함도 잠시 각자의 짝꿍을 챙기느라 분주해졌다. 우리 라온아띠 5기 역시 각자의 짝꿍에 집중하느라 서로 얘기할 시간이 없었다.

베다니홈에서 8년동안 해왔던 캠프인만큼 게임은 봉사자, 아동 모두 즐길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전문적이었다. 캠프진행을 맡았던 스템 팀들의 호흡도 훌륭했다. 모든 부분에서 진행이 깔끔하고 체계적이다. 2주동안 밤새서 준비했다는데 그들의 노력에 박수를 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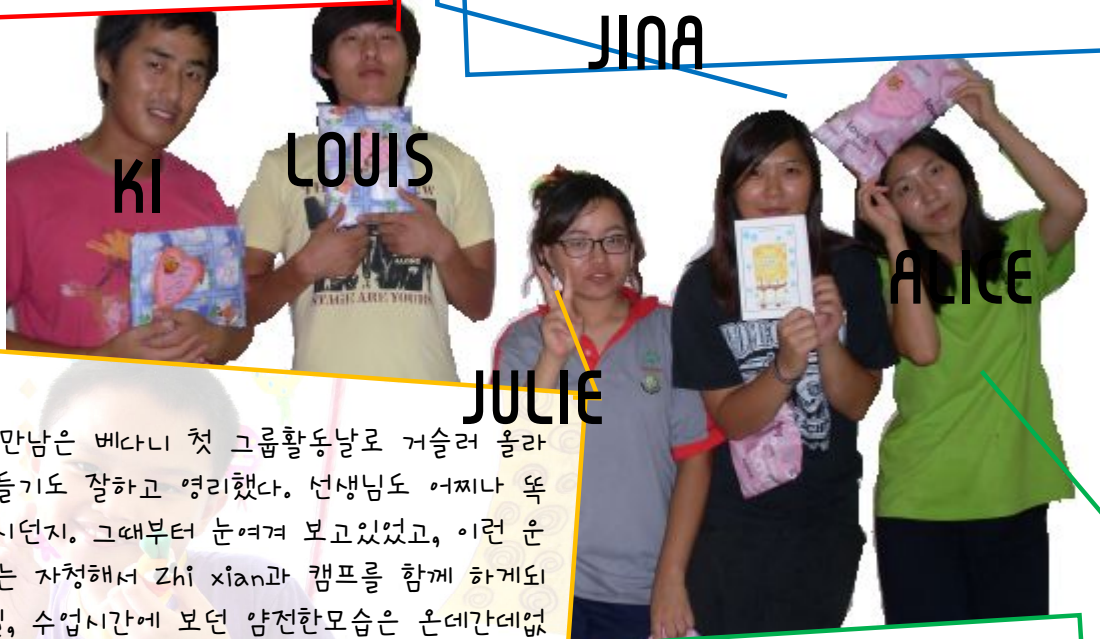
둘째날 밤의 파티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 봉사자들의 무대에서 한국팀은 태권도복을 입고 Different Tears와 Sorry Sorry 태권무를 선보였다. 우리팀은 닥쳐서 한 만큼 준비과정은 특히 기억에 남지만 다음기수가 조금 준비한다면 미리 준비하길 권한다.

정신없이 바쁘게 지나간 캠프였지만 그 속에서 충분히 베다니홈에서의 활동과는 다른 신선한 점들을 배울 수 있었다. 무엇을 기대하던 그 이상을 느끼는 시간이다. 미리 준비해 갈 것은? 열린 마음과 굳이 또 뺄까 하면 지치지 않는 체력정도.



베다니캠프에서 다시만난 아이들은 역시나 사랑스러웠고 봉사자친구들은 정겨웠다. 하지만 모든친구들이 캠프에 참석하지 않아 그 친구들의 빈자리가 아쉬웠다. 또 하지만 다른 친구들의 새로운 매력을 볼 수 있어서 아주 기뻛고, 새친구들과의 만남도 아주 즐거웠다. 캠프는 아주 신선하고 다채로웠다. 내가 겪어 보지 못한 새로운 형식의 캠프였다. 다시 또 오고 싶어 만드는 즐거움이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그룹의 리더를 맡게 되었는데, 영어의 미숙함으로 인해 리더로서 팀을 잘 이끌지 못했던 것 같이 팀에게 미안했고 내자신도 힘들었다. 좀 더 발전하고 싶다. 재 만남이 기뻛던 만큼 재 이별도 너무 슬프고 아쉬웠다.

나는 장애캠프가 처음인 사람중 한명이었다. 그러나 베다니홈 친구들이 누구보다 그리웠던 사람중에 한명으로서 캠프가 너무 기다려졌다. 캠프는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더 재미있고 멋졌다! 다른 장애캠프는 가보지 않아 모르지만 이걸 정말 딱 장애아동에 너무 딱 맞는 캠프라는 생각이 들었다. 1대1매칭으로 진행되는 것도 아이의 모든 것을 내가 3일동안 책임진다는 것도 나에게도 너무 새다른 경험이었다. 그러나 내친구는 미얀마에서 온 아이였는데 말레이어는 알아듣지만 미얀마 말밖에 할줄 모르는 아이였다. 난 드디어 내가 언어의 장벽에 부딪혔다고 생각했는데 굳이 말이 아니더라도 통할 수가 있긴 있나보다라고 처음 느꼈다. 사연이 많은 아이여서 더 애착이 가고 내가 떠날 때 끝까지 혼자 남아 나를 위해 손을 흔들주던 모습을 나는 절대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다. 베다니 캠프와 이 친구는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선물해줬다. 나는 아직까지도 그친구가 많이 보고싶다.



JINA

다시만난 Zhi xian!

Zhi xian과 나의 만남은 베다니 첫 그룹활동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아이는 만들기도 잘하고 영리했다. 선생님도 어찌나 똑똑하다며 칭찬을 하시던지. 그때부터 눈여겨 보고있었고, 이런 운명적인 끌림으로 나는 자칭해서 Zhi xian과 캠프를 함께 하게되었다. 근데 이게웬일, 수업시간에 보던 양전한모습은 온데간데없고 활동할때마다 사라지고 talk himself, locking으로 날 힘들게했다. 그치만 어쨌게 너무 귀여운걸. 특히 잠잘때 어둠속에서 Julie를 찾는 모습! 너무 사랑스럽다. 캠프를 통해 또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았고, 난 아직 그 매력에 빠져있다. 보고싶어!! **Zhi xian ada bagus!**

JULIE

미운정 고운정 든 내 짝 Susanna를 소개하고 싶다.

익숙한 베다니홈 아동이 아닌 외부 special아동이였다. 평소 아이들을 좋아하여 누구와 짝이 되든지 즐겁게 지낼수 있을거라 생각했지만 내 예상과 달랐다. 처음에는 Susanna의 행동이 나에게 너무 벅차다고 느껴졌다. 그러다가 먼저 친구가 되라는 Susanna의 엄마의 말대로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하였다. 모든 활동이 끝나고 Susanna를 배웅하면서 느낀 감정은 시원섭섭. 당분간은 Susanna의 "Thank you"소리가 많이 그리울 것이다.

한 아이에게 진심으로 집중한다는것이 얼마나 어렵고도 중요한것인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였다.

나의 눈에 비춰진 봉사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싶다. 분명 모범적인 봉사자들이 다수이지만 소수 봉사자들에 해당하는 이야기다. 이번 캠프에 참가한 봉사자들의 대다수가 처음참가했고 10대들도 많았다. One by One, 학생 1명과 봉사자 1명이 짝이되어 캠프의 모든 활동을 함께 해야한다. 모두가 즐거워야하는 캠프인데 소수의 학생과 봉사자의 눈에는 즐거움이 보이지 않았다. 학생중에 봉사자의 눈치를 보는 학생들도 있었고, 봉사자가 학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봉사자를 따라다니는 경우도 있었다. 캠프에 참가하는 봉사자들에게 적극성과 미소가 있었더라면 모두가 즐거운 캠프가 될수있지 않았을까?